

우리문화

2011.04 Vol. 225 April

문화 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에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빠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11. 04 Vol. 225 April

Contents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
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
인 최종수 |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
장), 김종(광주광역시 지회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02 연합회 이사회	한국문화원연합회 50차 총회
04 익스큐티브, 문화원	울상남구문화원
08 연합회 사업	생활문화 공동체
12 봄마중	사직동 그 가게
18	봄을 걷다
22 문화산책	수월관음도를 만나다
26 문화원 book book	
28 문화원 돋보기	
30 연합회 레이더	우리 문화 소식
32	원장 동정

연말 정산 회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3월 17일(목) 오전 11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원영환 강원도지회장과 정수현 제주도지회장 인사를 시작으로 제 2차 이사회를 시작했다.
1호 안건으로 2012 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추진(안), 2호 안건으로 지방문화원 미납회비 처리의 건 등이
다뤄졌다. 이번 이사회는 총 26명 이사, 1명의 감사가 참석하였다.

2011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제2차 이사회

일시 : 2011. 3. 17(목) 11: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처용의 낙살처럼,
처용의 익살처럼

울산 남구문화를 이끄는
남구문화원

티동,

반갑습니다

(좌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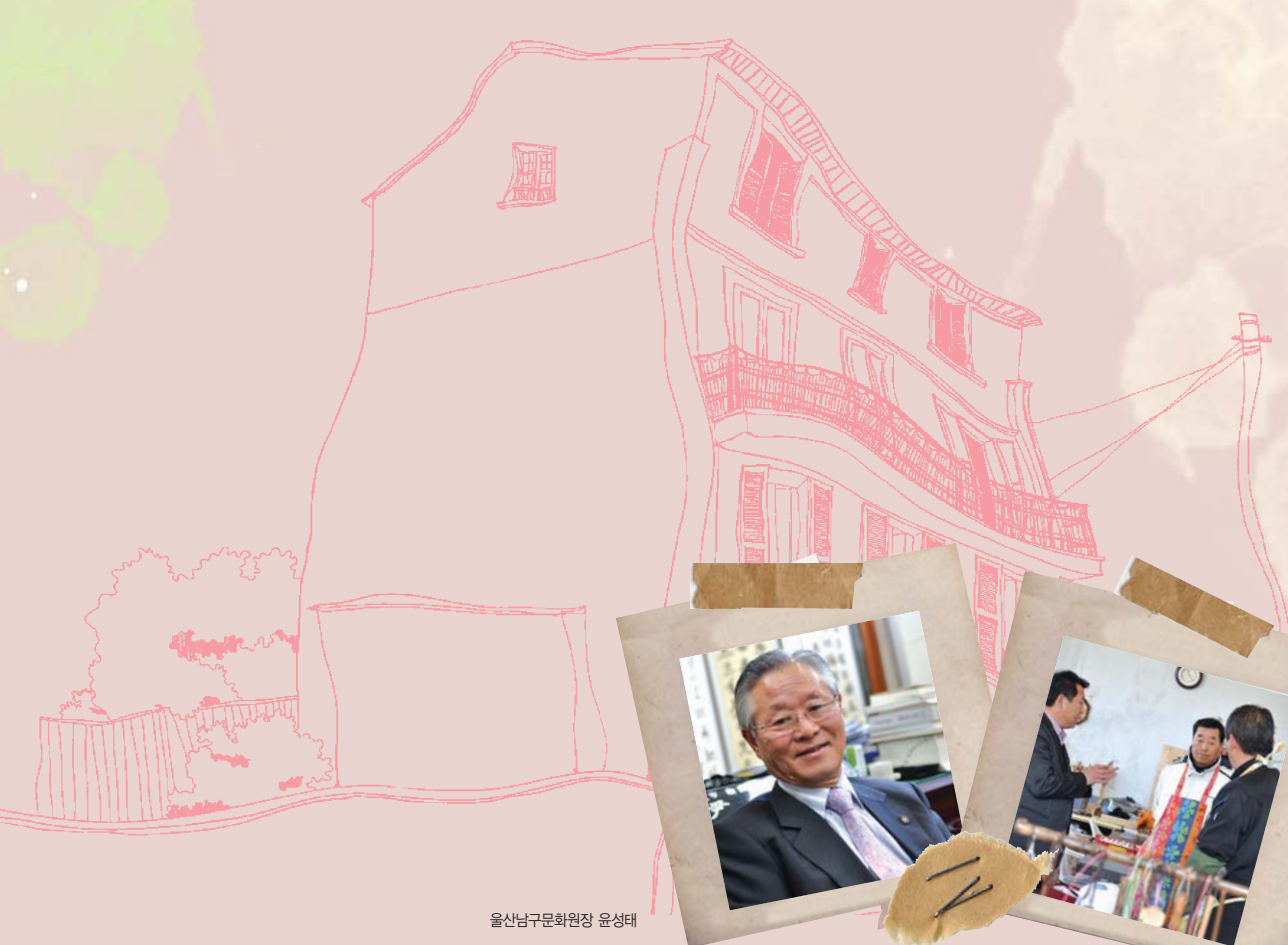
울산남구문화원 : 간사 김은양, 이사 김건곤, 국장 심영보, 원장 윤성태
울산시지회 : 사무처장 정태호, 간사 이정민



울산이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공장 굴뚝 같은 것이 아른거린다.

그 도시는 여전히 공장에 뭉실뭉실 연기 오르는 공업도시일까. 울산의 문화가 자못 궁금하다.

울산의 변신, 남구문화원에서 확인해봤다.



울산남구문화원장 윤성태

시내 중심에 자리 잡은 남구문화원. 원사의 역사만 해도 42년이다. 긴 시간동안 문화원 옆으로 새 건물들이 속속 올라오지만 문화원사는 옛날 건물 같지 않다. 문화원 식구들은 낡은 건물이라고 하지만 그러기엔 천장도 높고 외장도 꽤 세련되었다.

심영보 국장이 처음 왔을 당시 1톤 트럭분으로 다섯 대 정도 짐이 나왔다고 하니 할 말 다했다. 문이며, 화장실, 창문까지 일일이 손안 간 곳이 없다. 낡은 건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 사무국의 직원들의 손길이 구석구석 안 미친 곳 없다는 것이다.

울산은 내 고향, 울산 문화사랑

울산시지회장을 겸하고 있는 윤성태 남구문화원장은 말 그대로 울산인이다. 울산 변화의 바람을 몸으로 체험한 그다. “고향이 울산이다. 울산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 정년퇴임을 하고 위낙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경주박물관 박물관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나니 지역에 문화로 봉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울주문화원 사무국장이 공석이라 그곳에서 업무를 보았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문화원과의 인연이다. 그렇게 일을 남구문화원까지 인연을 맺었다.”

그의 바람은 갈끔했다. 정년 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봉사로 이어졌고, 그것이 문화원과 이어졌다.

“이래봐도 이곳이 울산 문화의 중심지다. 문화원 뿐 아니라 바로 옆의 문화예술회관, kbs 등 문화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달동문화공원도 있어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공연보고 공원에서 놀고 그렇게 이 지역이 하나의 문화존이 된다.”

더욱이 접근성이 좋다보니 열네 강좌를 개설하면 1년이면 600여명이 넘는 회원이 다녀간다고 한다. 근처의 문화시설을 생각하면 꽤 많은 사람이 문화원을 찾는 것이다. 이 뿐인가. 정월대보름달집태우기를 시작으로 유적지 답사, 충효학생백일장, 화전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내내 계속되어 연중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회원들의 회비가 모여 문화원으로

울산지역은 소문대로 기업메세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울산지역 문화원들은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더러이지만 울산남구문화원이야말로 특별한 케이스. 기업체의 이윤으로 들어오는 기금이 아니라 회원들의 순수 회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에서도 특별한 일에 속한다. 회원들이 활동을 하며 스스로 문화원에 손길을 내밀었다고, 지역에서 문화원의 위상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사례다. 또한 9월에는 메세나 페스티벌도 계획중이다.

울산하면 뽀니뽀니해도 '처용'이다. 700여명의 손님을 모시고 10월이면 처용맞이 처용제의를 할 예정이다. 남구문화원에서 또 하나의 히트는 '전국 한마음 시 낭송 대회'다.

전국 규모대전인데 작년 성인부 응모작만도 60~70부라고, 10월이면 시로 물드는 울산의 문화에 참여해볼 수도 있다. "우리는 전통문화 보존도 잊지 않지만 청소년 대상



의 젊은 문화를 선도해 나가려고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통혼례라든지, 한글 교육 등 해나가야 할 것이 참 많다.”

울산의 실정에 맞게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윤원장이 가장 재밌어 하는 건 바로 신행민 초청잔치다. 일종의 홈커밍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울산이 고향인 분들과 모여 잔치를 벌이는 거다. 옆집 순이 앞집 철수 다같이 만나는 자리라고.

울산으로 놀러오세요. 피서 오세요

남구의 길을 가다보면 봉긋 솟아있는 마을이 하나 보인다. 신화마을이다. 차가 올라가기에도 빠듯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색색으로 칠해진 작은 집들이 보인다. 벽면을 보니 웅기종기 채치 있는 벽화가 가득이다.

“이 마을이 공업단지에 밀려밀려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이분들은 이곳이 삶의 현장인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순히 구경하는 장소로 여긴 것을 안타깝게

여겨 남구청과 함께 한 작업이다. 예쁘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분들이 여기서 어떤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이 마을을 잘 정비해 사람들도 오게 하고 공연도 하는 것이 바람이다.”

미술을 전공했다는 심국장이 보는 것은 단순히 예쁜 동네가 아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직은 예뻐기만한 동네이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심어지면 더 다채로워질 것이라고. 태화강 정비로 강변은 그 자체로도 울산의 상징이 되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대숲이 놀랄 정도다. 아직 정비 중인 곳이 더러 있지만 시원한 물줄기와 대숲 소리를 들으면 유유자적 이곳이 무릉도원인가 한다. 윤원장은 울산이 참으로 놀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

공업도시라는 인식이 지금은 강하지만 문화도시로의 인식이 점차 강해질 것이라 한다. 주말 방문객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니 날이 따뜻해지면 울산 구경도 하고 슬쩍 발길을 돌려 문화원도 탐방해보는 것은 어떨까.

2011 연합회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삶이 문화로, 문화가 삶으로

‘문화생활’은 특별한 사람, 계층을 떠올리게 하지만, ‘생활문화’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예술이 주는 특별한 감성을 주민스스로 공감하고 합의된 공동체를 만들어감으로써 이웃 간의 소통·삶의 소소한 행복·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전국의 228개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점으로써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해 우리지역 모델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소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는 21세기 우리사회 새 마음, 새 문화운동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서 함께 만나고, 교류하며 지역 고유의 특색에 맞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임대아파트 단지 등 문화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 혹은 공연이 되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우리 동네가 무대가 되는 프로그램, 이웃들이 사랑방에 모여 시를 만들고 낭독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 문화예술을 매개로 개인 및 지역공체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지역의 역사·사회적 현상과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주체가 되어 개인의 삶을 풍부히 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관람에서 창작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합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자생적·자율적 문화참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반인의 문화향수를 ‘관람’에서 ‘창작’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문



화감수성 제고 및 문화예술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문화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

○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며, 지역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합니다.

○ 기초생활권 규모의 사업대상지와 해당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 가능한 문화예술단체를 매칭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예술단체와 지역 내 협력 가능한 네

트위크 혹은 공유공간을 확보한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권장합니다.

사업 성과

○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에 대해 의식하고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 가는 변화를 보였으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과 사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 간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이웃에 대한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한층 성숙한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2009년 18개 지역 시범사업 첫 시행 후, 2010년 계속사업 13개 지역과 신규사업 6개 지역, 총 13개 시도 19개 지역에서 사업 진행, 2011년 계속사업 14개 지역과 신규사업 9개 지역, 총 23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유형

공동예술형, 공동체문화/예술동아리형, 생활문화네트워크형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의 인문사회적 상황과 공동체 내의 갈등을 지역주민이 해소해 가는 공동예술작업으로 예술가와 결합하는 공동체적 예술작품 유형

둘째,

지역생활권 공동체에 대한 문화적 결속 및 공동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 자발적 문화생산조직으로서의 동아리 유형

셋째,

예술, 생활문화 등을 활동해 지역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묶어내고 지역주민이 공동체성을 끌어내는 여러 가지 활동과 연계하는 유형

사업 스케치

대구 대명동/주민오케스트라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지역으로 글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며 2009년 사업을 통해 교육과 더불어 시를 창작하고 발표하고 있으며 마을 곳곳에는 주민들이 직접 창작한 시화작품을 냉동창고나 컨테이너 박스에 벽화로 만들고, 집집마다 시 꽃말을 제작 설치하고 있음.

인제 냇강마을/영화만들기

통영 능양마을/시 벽화

마을영화만들기에 어르신들이 직접 배우 및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으며 점차 청·장년층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마을영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1세기 우리사회 새 마을, 새 문화운동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서 함께 만나고, 교류하며

지역 고유의 특색에 맞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화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있음.
2010년에 정식으로 마을 시집을 발표하고 지역축제 등에서 시 낭송 프로그램으로 참여함

진주 강남동/유등축제체험

주민들에게 축제의 콘텐츠인 '유등'과 관련된 창작교육을 통해 전문 기능을 숙달하고, 점차 지역축제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임

서울 중랑구/연극연습모임

넷강마을 영화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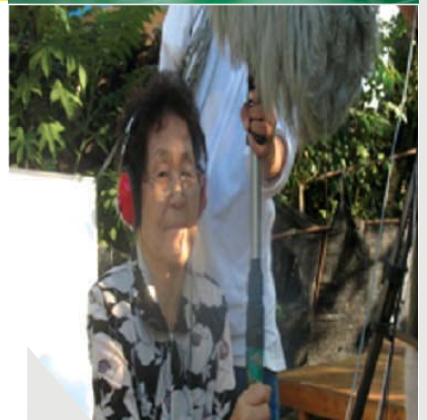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생활문화공동체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artvillageproject>



우리 손 잡고 걸어요

록빠, 그리고 사직동 그가게

어디를 걸든지, 우리는 같은 곳을 걷는다.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걷고, 나고 자란 동네를 걷고 충충, 가고 싶었던 나라를 걷는다.

어디를 걷는 것이 중요하겠나, 뚜벅뚜벅 봄이 오는데 그 마음을 어디에서 하건 그것이 무슨 관계라. 걷는다. 사직동으로 걷는다.

그 가게에서는 도대체 누굴 만나게 되는 걸까. 홀연히 떠오르는 얼굴을 들여다보려 느리게 걸어본다.

토요일 늦은 오후, 동네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게를 찾았다. 순식간에 떠들썩해진다.





사직동 그 가게 문 앞. 의자 하나, 탁자 하나 일일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아래문방구의 변신 록빠 2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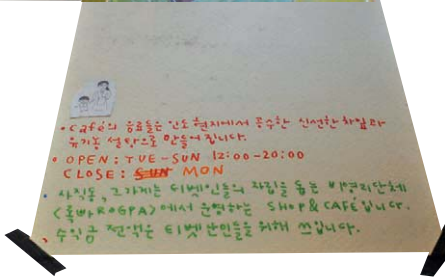
동네 사람들에게 이곳은 꽤 오래전부터 아래문방구였다. 사이 간판이 내려지고 공사를 하더니 어느날 뚝딱, 가게다. 의심스러워도 일단 앉자. 앉아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벽면의 색동 기와 달라이 라마 사진, 작은 잔에 끓여 나오는 짜이가 시선을 잡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그래도 이곳의 정체가 뭔가 싶는데 슬슬 귀기울여 보자. 옆 테이블의 대화너머로, 주방 안의 소근거림으로. 메뉴판에 메모로.

“이곳은 록빠 2호점이고 1호점은 인도의 다람살라에 있어요. 록빠는 돕는 이, 친구라는 뜻인데 처음의 시작은 무료탁아소였어요. 인도로 온 티벳 난민 중 엄마들은 아이 때문에 일 하러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을 돕고자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맡고나니 또 문제인거예요. 이분들이 일할 곳이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가정에서 직접 수공예품을 만들고, 그 작업물을 팔려고 보니 록빠 1호점이 되었어요.”

이곳은 두 명의 매니저와 40-50명에 달하는 자원활동가들이 꾸려나가는 곳이다.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함께 일구어낸 공간이다.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여 인도의 다람살라를 넘어 곳곳의 사람들의 손길과 정성을 넘어 사직동의 한 가게에 다다른다. 그

뒤컨으로 통하는 작은 창은 바닷속이다.



것이 룽빠 2호점, '사직동 그가게' (이하 그가게)라고 이곳의 매니저 임태영 씨는 말한다.

문화 유목민들, 지역 안에서 행복하기

그가게의 수익금은 전액 티벳난민을 돕는 데 사용된다. 처음 오픈할 때만 해도 그냥 그런 찻집 정도로만 인식된 탓에 사람도 많이 들지 않았다.

돌과구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우리의 취지도 좋지만 우리가 지역 안에서 행복해야 하고 이 지역의 분들도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대표적으로는 멜로디잔치예요.

사실 손님이 너무 없어서 대안으로 마련한 거기도 하지만요.(웃음) 그런 식으로 여러 아이디어가 나와요.

귀농을 꿈꾸는 분들이 모여 룽빠작목반이 되고, 잠지일을 하고 싶다 한 분이 발밤발밤 잠지를 만들게 되었고요. 문화



를 향유하고 누리기 원하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일지 몰라요. 오픈할 때 우리끼리 21세기형 유목민 문화공동체라고 했었어요.

그 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도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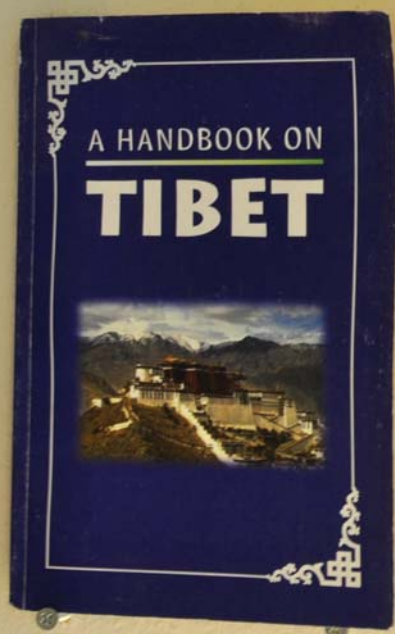
어떤 형태도 없었다. 그렇다고 정해진 인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둘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이 현재진행형, 그가게의 모습이다.

감동 더하기 감사, 사랑 나누기 사람

“한번은 편지가 왔어요. 뜯어보니 청주교도소 재소자 분인데, 주간지에 실린 저희 기사를 보신 모양이에요. 잡지에 크게도 안 나왔어요.

작은 상자로 조그맣게 나왔었는데 그것을 보셨다구요. 우리의 일에 보태고 싶으시다고 5만원을 넣어 보내셨어요.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셔서 천 원 정도 버시





사직동 그 가게 내부모습. 곳곳 티벳 소품이 가득하다.



사직동 그 가게 '멜로디 잔치' 의 모습



“한번은 편지가 왔어요.

뜯어보니 청주교도소 재소자 분인데,

주간지에 실린 저희 기사를 보신 모양이에요.

잡지에 크게도 안 나왔어요.

작은 상자로 조그맣게 나왔었는데 그것을 보셨다구요.

우리의 일에 보태고 싶으시다고 5만원을 넣어 보내셨어요.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셔서 천 원 정도 버시거든요.

3~4개월 정도 일한 것을 봉투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생애 최고의 사치를 부린다고 쓰셨거든요.

그런 일이 기억에 남아요.”

거든요. 3~4개월 정도 일한 것을 봉투에 보내신 거예요. 그 분이 생애 최고의 사치를 부린다고 쓰셨거든요. 그런 일이 기억에 남아요.”

청주에까지 소문난 일이 동네에서 아니 그럴 수 있나. 동네방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머무르는 곳이 그가게다. 도장 만드는 프랑스인 누구, 손바느질 하는 누구, 산책하는 누구, 서성이는 누구...한 사람 한 사람의 색과 무늬로 그가게는 금방 아라베스크 무늬다.

한적한 오후라면 살금살금 걸어 그 문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날의 모습은 또 어떨지 모르겠다. 노래가 들려올지, 장터가 열릴지.

걷자, 걸어오자. 사람이 모이는 자리 함께 손잡고 걸어봐도 좋겠다.

더 자세한 일이 궁금한 사람은 아래 홈페이지 방문

<http://blog.naver.com/rogpashop>

봄을 걷다

최근에 걷기가 조명받고 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걷기 명상처럼 새로운 명상법이나,
올레길, 둘레길과 같은 걷기만을 위한 여행지까지 그 내용도 다양하다.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반가운 봄이 왔다. 이번 봄에는 한번 제대로 걸어보자.



거르지 않고 찾아온 봄

바야흐로 봄이다. 지난 겨울의 한파는 다음에 봄이 온다는 계절의 순환도 의심할 정도였다. 길가 가로수에도 푸른 잎이 트고 산과 들에 피어있는 꽃을 보니 믿기지 않게 봄이 오긴 왔나보다.

답답한 사무실이나 차가운 아파트에서 나와 발을 가볍게 땅에 대고 천천히 몇 걸음 떼어보자. 비록 아스팔트 바닥일 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도 마음도 좌우로 살짝살짝 흔들린다.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





다. 하늘 아래를 걷고 땅 위를 걷는다. 봄에는 걸어야 한다. 생명의 기운을 느껴야 한다. 걸음은 느리다. 그리고 이 느낌에는 힘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을 산책하며 일상에 지친 몸을 재충전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한다. 때로 걷기는 명상과 사색의 길이기도 하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철학자의 길처럼 칸트나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이 천천히 걸으며 사색에 잠기는 산책로도 있다.

걸음, 명상의 세계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걷기 명상이나 올레길 같은 걸음과 관련된 것들이 주목 받고 있다. 걷기 명상은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이 널리 전파한 것으로 말 그대로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것을 뜻한다. 현대인들은 명상을 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간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앉아 명상을 하는 시간조차 내기 힘들게 느껴진다. 꼭 자리에 앉아 눈을 감지 않더라도 걷기 그 자



체로 명상이 가능하다는 게 어찌면 믿음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데는 걷기만한 것이 없다고 설파한다. 직장과 집을 오갈 때,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며, 우리는 걷는다.

출근길에는 지각의 위험도 있어서 무슨 전쟁이라도 치르듯 빠른 걸음으로 정확하게 걷게 마련이다. 지하철 역사에서, 혹은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걸음을 천천히 떤다면 뒷사람에게 밀리거나 하며 길 위의 장애물이 된다. 이때 잠시라도 온갖 걱정과 상념에서 벗어나 오직 걷는다는 행위 자체만을 인지하며 걸을 때 비로소 걷기 명상이 될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일찍 집에서 나와 걷기에 의미를 부여해보자. 평화롭게, 행복하게 걷기만 하세요, 라고 그가 권유한다.

제주 올레길

그래도 기왕이면 답답한 공기와 소음으로 가득 찬 도심보다는 교외가 걷기에 더 좋지 않을까. 최근에는 오로지 걷기만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걸맞게 걷기에 특화된 여행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올레길은 제주도 해변을 따라 조성된, 걸어서 여행하는 자들을 위한 길이다. 도심에서는 신호등에, 골목마다 튀어나오는 자동차에, 담배 피며 지나가는 행인 때문에 좀처럼 편하게 걸을 수 없다. 도시에서는 행인을 위한 보도에서조차 안전하게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제주 올레길은 그런 걱정 없이 온전히 걷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올레는 원래 집 대문에서 마을의 큰 길로 나서기까지 이어지는 작은 길을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제주도 특유의 돌로 만든 담이 길의 양 옆에 길게 늘어서 있는 골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올레길은 제주의 바다와 크고 작은 오름, 들의 풍경을 온 몸으로 감싸 안으며 걸을 수 있는 길을 뜻한다.

걷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름다운 풍



광과 함께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길을 찾던 사람들의 시선이 제주도로 향했던 것. 하나 둘씩 코스가 개발되어 지금은 모두 16개에 이르렀다.

그중 첫 번째는 시흥에서 광치기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제주 올레에서 가장 먼저 알려졌는데 시흥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성산일출봉과 우도를 모두 조망할 수 있어 각광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검은 돌을 두른 밭과 들의 목가적인 풍경이 인상적이다. 표선에서 남원까지 가는 가마리 해녀 올레는 해안선과 오름, 중산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 해녀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코스는 해안도를 따라 걷는 길이다. 총 길이 22.9km로 걷기에 부담스러운 길이지만 아름다운 풍광에 취해 걷다보면 어느새 끝까지 가게 된다.

제주 올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는 제7코스인 외돌개에서 월평포구까지 가는 해안올레다. 이곳에는 올레인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수봉로가 있다. 수봉로는 올레지기인 김수봉 님이 원래 염소들이 오가는 길을 손수 계단을 만들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자연 속에 섞여있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유채꽃이 만발한 들과 현무암이 솟아있는 해안가를 걷는 코스다.

내륙의 둘레길

올레길과 더불어 인기 있는 도보여행길이 바로 둘레길이다. 현재 대표적인 둘레길로는 지리산 둘레길과 북한산 둘레길이 있는데 워낙 도보여행이 여행객들의 인기를 끌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둘레길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지리산 둘레길은 내륙 산간지역의 자연과 삶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길이다.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농로, 숲이 우거진 산길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개통구간은 총 5개 구간으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3개 도와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의 16개 읍면 80개 마을을 잇는 도보여행코스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예능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주말이면 지리산 둘레길로 떠나는 직장인, 가족들이 늘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은 서울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가벼운 도보여행코스로 명상길, 옛성길, 순례길 등 10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다. 크고 작은 코스의 길이는 5km내외로 주말이나 새벽에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

최성덕 여행작가

수월관음도를 만나다



꽃꽂이 수강생들과 오랫동안 기억 될 추억을 만들고 싶어 야외수업이라는 명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다. 가을의 유혹이 아니라도 “(高麗佛畵大展) 700년만의 해후”는 제목에서부터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듯 매력적이지 않은가.

고려는 34대 475년 동안 “왕씨”들이 집권을 한 국가이다. 왕건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 태조가 되었다. 고려 사회의 신분은 귀족과 중류층, 양인과 천민으로 양분되었으니 귀족들은 나라의 중심에서 지도층으로서의 특권을 누렸고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였다.

이 시대에는 숭불(崇佛)정치를 하면서도 유교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이념으로 삼다보니 불교와 유교가 공존하며 화려한 문화를 꽃 피우게 된다. 국자감(國子監)이 설치되고 과거 제도를 도입하는 획기적 변화를 시도한다. 고려는 국가적으로 불교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불교와 함께 눈부신 발전을 했다.

고려를 창건한 태조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국가적인 행사로 발전시켰으며 고려 수도였던 개경에다 수많은 사찰들을 건립하게 하였다.

또한 의천(義天)이 천태종(天台宗)을, 지눌(知訥)이 조계종(曹溪宗)을 개창하였고, 대장경의 조판 등 화려한 불교의 진수(眞髓)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이때의 불교 미술은 그 정점에 다다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시기보다 아름다운 불화(佛畵)들이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고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멋이 담겨 있는 고려청자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직업적인 화원(畵員)들이 관청에 소속되어 왕의 진영(眞影)이나 산수화 인물화 등을 그렸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고려불화는 지금 많은 것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현존하는 것이 160여 점 정도인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것은 고작 10여점 밖에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더 많은 훼손과 분실이 되기 전에 우리 것을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화전시를 처음 보는 날은 워낙 귀한 작품들이라 불화를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다 보니 전체적인 작품 감상은 어려웠고 큰 테두리만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붉은 색이 많이 들어가서 고려의 불화가 참으로 화려했었다는 정도였다.

水月觀音圖

두 번째 전시장을 찾았을 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살펴볼 수 있었다. 붉은색과 · 녹색 · 군청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심혈을 기울여 피와 땀으로 그려낸 작품이면서도 붓의 끝으로 살짝 스쳐지나간 듯 독창적인 섬세함이 돋보이는 느낌이었다.

고려불화의 특징은 부드러운 비단위에다 광물질로 만든 재료들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 것이다. 시대를 뛰어넘어 찬란한 광택을 내고 있는 불화를 보면 금니로 완벽하게 그린 많은 문양들이다. “불화의 문양과 윤곽선 등에 쓰인 금니도 아교물에 금가루를 개어 사용하였다. 바탕천의 뒷면에 색을 칠하여 안료가 앞면으로 배어 나오게 한 후 앞면에서 채색이 나 음영을 보강하는 기법이다.”¹⁾

그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연꽃 · 연잎 · 국화 · 모란 보상화(寶相花) 등 전통의 식물들이다. 당초(唐草)무늬의 주제로 사용되는 보상화문(寶相華紋)은 당나라 때부터 즐겨 사용된 장식적인 고유의 문양이기도 하다. 당초문(唐草紋)이라는 특이한 문양은 식물을 서로 엇갈리게 꼬아 주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연결시켜주는 것을 뜻한다. 고려불화에 당초문이 많이 그려진 것을 보면 고려라는 국가의 영원한 존속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고, 다산(多産)이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보았다. 또한 닭의 머리와 뱀의 목, 거북의 등, 물고기의 꼬리 모양 등을 상징하는 상상속의 새 봉황무늬와 구름무늬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고려의 불화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 있다면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이다. 고려 후기 제 26대 왕이었던 충선왕(忠宣王)때의 작품이다.

아버지 충렬왕의 선위(禪位)를 받아 왕에 즉위하였지만 7개월 만에 원나라로 강제 송환되어 10년간 돌아오지 못했던 왕이었다.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왔던 그는 원나라의 수도였던 연경(燕京)에서 자신의 집안에, 고려와 원나라의 학자들을 위해 만권당(萬卷堂)을 설치하여 학문을 연구하게 하였다.

고려의 많은 문인과 석학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고려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으니

충선왕은 학문과 예술적 감각 또한 뛰어났던 왕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고려를 그리워하며 타향에서 머물던 왕을 애뜻하게 여겼는지

충선왕의 왕비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했던 화가들을 동원하여

수월관음도라는 명작을 탄생시켰다.

고려의 많은 문인과 석학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고려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으니 충선왕은 학문과 예술적 감각 또한 뛰어났던 왕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고려를 그리워하며 타향에서 머물던 왕을 애뜻하게 여겼는지 충선왕의 왕비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했던 화가들을 동원하여 수월관음도라는 명작을 탄생시켰다.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타국땅인 일본 센소지(淺草寺)로 건너가서 머물다가 처음 모국으로 돌아온 작품이다. 700년 만의 고국나들이라니 수월관음도 또한 얼마나 마음 설레며 이날을 기다렸겠는가. 다만 찬란한 우리의 보물들이 해외에서 국적없이 떠돌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광배(光背)는 마엽(麻葉)무늬를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하고, 대나무 잎을 닮은 것 같다. 폭포수에서 한방울의 큰 물방울이 옆으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인지 물방울무늬 수월관음도라 부른다. 이렇게 정갈한 그림이 또 있을까. 인자하고 온화한 표정을 바라보며 서 있으니 엄미품에 안겨있는 듯 포근해진다. 마치 나 자신이 관음도의 작품 속으로 흡수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화려함을 표현하기 위해 금니를 섬세하게 덧바르고 당초문과 함께 연화당초문의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다. 수월관음도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타국으로 떠나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알기라도 하듯 슬픈 모습으로 외롭게 서 있다. 나 또한 그와의 이별이 아쉬워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다. 전시가 끝나고 일본으로 떠나가면 언제쯤 이 땅을 찾아올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지 않은가. 나의 생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움 앞에서 수월관음도와 이별의 시간은 길었다. 우리의 문화재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고 전시가 끝나면 다시 일본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복잡한 현실은 수월관음도를 바라본 많은 이들의 가슴에 아픔으로 기억될 것이다.

1) 高麗佛畫大展 : 국립중앙박물관, 참조.

홍유연 수필문학가협회 이사

보물

팽성읍지

평택문화원 팽성읍지편찬위원회 발행

평택지역의 옛 중심지였던 팽성의 지역사를 체계적으로 갈무리한 책이 나왔다. 지리와 역사적 환경,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망라하였다. 컬러로 구성된 팽성읍지 확보가 눈길을 잡는다.

적상산사고 선원록 형지안

무주문화원 발행

무주문화원에서는 '조선왕조실록 무주편' '실록형지안'에 이어 무주군의 역사 자료를 꾸준히 집대성하고 있다.

문화재로이기도 한 적상산사고의 선원록형지안은 1641년(인조 19) 선원각이 건립되고 이후 창서각으로 옮기기까지 260여년간의 보관되어 있던 서책의 상태를 점검한 것이다.



충렬공 이대원 평택문화원 발행

평택 역사인물 사업 발간사업의 그 첫 번째로 충렬공 이대원의 정신을 기리는 책이 발행되었다. 조선 명종 21년의 인물인 이대원 장군은 왜구와 싸우다 전사한 인물이다.

포천향토사료총람 - 승정원일기편 제 4집 포천문화원 발행

포천문화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향토사연구사업의 하나인 승정원일기 속 포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책이 발행되었다. 고종 일기에 이어 인조 5년까지 내용 중 포천에 관한 내용을 추렸다.

어촌 심원광 연구 총서 강릉문화원 발행

어촌 심언광 선생은 16세기 초의 명신으로 당대의 문장가이며 사상가였다. 심언광 선생이 널리 알려지지 않음을 안타까워 하다가 도서와 세미나를 시작으로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명승수승대 거창문화원 발행

거창의 명승, 수승대의 암각 시문, 경관, 문화예술 공간 등의 자료가 정리되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리는 예술의 장으로 발전해온 과정과 명승지의 아름다운 절경을 맛볼 수 있다.



문화원 돋보기

경주문화원

『金鰲勝覽』국역판 발행



경주문화원(원장 손원조)은 최근 조선시대 경주지역의 4대 지리지(地理誌) 중 하나인 『금오승람』의 국역판을 발행해, 경주문화원 2011년도 정기총회 장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번 국역된 『금오승람』은 1930년대의 석판본 4권 4책으로 발간된 경주지역자료로, 경주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고 재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금오승람』은 향토한학자 이상필 선생이 국역하고 문경현 경북대 명예교수가 감수했다.

남구학산문화원

실버문화봉사단 '학산' 지역문화순회공연



실버문화봉사단은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연륜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남구학산문화원 순회공연단이다. 문화봉사단 실버극단 '학산'은 남구학산문화원의 노인문화예술교

육 연극교실에 참여하신 어르신들로 구성되었다.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문화원이 선정되었고, 실버극단학산은 2006년부터 순수창작극 '인생', '백만송이 장미'에 이어 2009년 '미워도 다시 한번', 2010년 '가족' 순회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가꾸어가고 있다. 올해도 새로운 창작극 '백년해로'로 지역의 여러 단체와 시설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실버극단 학산의 창작극은 지도선생님과 어르신들이 직접 소재를 발굴하고 구성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졌으며,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목적 :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실버세대들이 자신의 소질을 발굴, 개발하고 역량을 키워 문화를 매개로 이웃과 소통하며, 자신감을 얻고 노년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도록 함.

연극이라는 문화예술을 통해 참여하는 노인 자신 뿐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고 지역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고자 함

* 참여대상 | 60세 이상 노인(15명)

* 내용 | 창작 연극 제작 및 교육(매주 2회), 순회공연 진행(월 1-2회)

논산문화원

『사진으로 보는 논산100년』 옛 사진 공모



서랍장 앨범 속 추억의 옛 사진을 찾으시다' 논산문화원(원장 류제협)은 연말까지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서랍장 앨범 속 빛바랜 추억의 옛 사진을 찾고 있다. 논산의 옛 모습과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통해 지역 정서 공유와 애郷심을 고취하고자 논산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한다. 논산을 배경으로 한 자연경관, 관광문화, 생활상 등을 총망라하여 기록적 가치가 있는 사진을 모으고 있으며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제출 사진에 대한 규격이나 수량에 제한이 없으며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문화원에서 찾아가 받을 예정이다. 제출된 사진은 스캔, 인화 후 반환하고,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사진으로 보는 논산100년』사업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모하여 2013년에 심사 시상하고, 2014년에 사진집 발간 및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논산의 역사적인 사진들을 많이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황성문화원

제12기 문화학교 개강

개강일시 | 2011년 3월 14일(월) 10:00時

장 소 | 횡성문화원 문화사랑방

운영기간 | 2011년 3월 14일 ~ 12월 16일

상 반 기 | 3월 14일 ~ 7월 15일(4개월)

하 반 기 | 8월 22일 ~ 12월 16일(4개월)

수강과목 | 10개 강좌 교실

수강인원 | 각 교실별 20명 내외

대 상 | 횡성군 거주자로 18세 이상 성별제한 없음.

횡성문화원



제47차 정기총회

지난 3월 4일(금) 오전 10시 30분에 횡성문화원 회의실에서 정기총회가 열렸다. 안건으로 201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확정의 건, 기타 토의사항이 있었다. 정기총회에는 횡성문화원 회원(166명)이 참석했다.

영양문화원

제6회 관광영상 전국사진공모전

접수기간 | 2011년 11월 1일 ~ 11월 30일(당일도착분에 한함)

영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등 지역명소와 군민생활상 등을 소재로 한 관광영상 사진작품을 공모하기 위하여 『제6회 관광영상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역량 있고 뜻있는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분야

- 영양관광을 소재로 한 미발표 자유작(합성, 조작된 사진제외)
- 1) 영양 자연경관, 축제, 문화유적지,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레저 등 영양 생활영역을 조화롭게 표현한 수준 높은 관광 사진
- 2) 영양고추 등 지역특산물을 표현한 작품

접수

• 접수기간

2011년 11월 1일(화) ~ 11월 30일(수)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영양문화원 (우 764-810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41-1)

심사 및 발표

• 심사일시 | 2011년 12월 15일(목) 오후1시

• 심사장소 | 영양군문화체육센터(공개심사)

• 심사발표 | 2011년 12월 16일(금)

영양군청 홈페이지 (www.yyg.go.kr) 게재

• 시상 | 2011년 12월 중(추후공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양군 문화관광과(054-680-6067), 영양문화원(054-682-1378)으로 문의

계양문화원

『제12회』 인천 계양 서화예술대전 공모

백운거사 이규보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는 계양서화예술대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모부문

노년부/일반부/학생부

서예(한글,한문),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서각,

• 원서교부

2011. 3. 7 ~ 6. 3까지 (계양문화원)

※ 출품원서 등은 문화원 홈페이지(<http://gyeyang.kccf.or.kr>)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작품접수

2011. 6. 2 ~ 3(금)

(우편,택배 출품 가능 : 6월 3일 우편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79-1 소재(계양구청 지하 전시실)

• 심사발표

2011. 6. 10. 오후4시(목) (계양문화원 홈페이지

<http://gyeyang.kccf.or.kr>)에공시

• 기타 문의

계양문화원 TEL:(032) 450-5753 FAX:(032) 541-8684

문화유산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지난 3월 15일(화) 16시, 서울 구 서울과학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이 있었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박인호 부회장(은평문화원장), 오용원 부회장(경기도지회장, 평택문화원장), 정정희 부회장(충남도지회장, 당진문화원장), 조정현 가평문화원장, 장재찬 양평문화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최중수회장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관 건립 및 '2012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협조 건의에 대하여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배석한 박순태 문화예술국장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특히 '2012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기획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원 제명(진주문화원)

연합회는 진주문화원(원장 김진수)의 2010.6.2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법원의 실형 선고와 진주문화원 일부 임원들의 민원 건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21일 지방문화원(표준) 정관에 의거 부원장에게 원장 직무대행 권고를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연합회 이사회(2011. 03. 17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진주문화원장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한 정치관여 등의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음을 지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제12조 제③항 제1호 및 연합회 정관 제8조에 의거 진주문화원에 대하여 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제명하였다.

이에따라 연합회는 진주문화원에 대하여 연합회 회원자격 제명과 아울러 원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대로 회원자격 회복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다

지방문화원 대상 종합경영조사서 3월 31일 마감

지방문화원 대상 종합경영조사서 3월 31일 마감된다. 문화원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경영조사서는 전국 지방문화원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 기초통계자료 축적 및 정책방향을 세우는 연구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각 유관기관 및 타 문화원에 기초 자료로 제공, 정보 활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군소단위) '문화원 계량지표'를 세우는 근거로서 '문화원 경영평가 및 대한민국문화원상' 정량평가에 적용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각 지방문화원의 현황 파악 및 발전 방향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부터는 2010년 서면으로 실시되었던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후 설문조사의 연례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미리보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같이해요

(4월 27~29일, 제주대명리조트)

2011년 지역문화트렌드와 소통을 위한 워크숍

사진가 김중만, KBS1 진품명품 감정위원 김영복 등 특강

전국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연수가 오는 4월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조천읍의 제주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된다. '2011년 지역문화트렌드와 소통하기'가 금년 연수 주제이다. 그 이유는 지방문화원의 보편적인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현시기 다양한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지방문화원의 활동반경을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연수 첫날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유명인사 초청특강이 있다. 유명 사진가인 김중만의 '우리문화의 재발견'과 KBS1 진품명품 감정위원인 김영복의 '고문서 읽기의 즐거움'에 대한 강연이 있다. 특히 김영복 감정위원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들이 사전에 제출한 고문서 등을 현장에서 감정한다. 연수 이틀째는 하루 종일 2011년 지역문화 트렌드에 대한 5개 분임별 워크샵이 있다.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원사업 트렌드(컨설팅: 신동호 리서치21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의 각종 지역문화자원 활용 지원정책과 지원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지방문화원의 프로젝트 구성 등으로 진행된다.

▶ 지방문화원 사업과 소셜네트워크(SNS)의 활용(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은 요즘 유행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지방문화원 사업을 접목하고 활용하는 사업 구상을 진행한다.

▶ 문화원, 잠자고 있는 공간과 사람을 깨우다(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는 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매개로 지역내 문화단체간 네트워크를 모색한다.

▶ 발랄한 상상이 향토문화를 대중화한다는 향토사가만의 고유영역에 머물러 있고, 연구중심이던 향토문화를 창조적 아이디어 사업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향토문화를 대중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결국 향토문화의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한다.

▶ 생활속의 문화예술-지역문화정책 현장읽기는 공부 및 공공기관의 지역문화에 술정책과 지원사업 읽기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생활속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이뤄진다. 3일째는 지역의 자연과 환경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제주올레 답사가 있다. 답사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재인식과 활용하는 동기를 만든다. 한편 제주 환경연구센터 이사장인 신상범 제주문화원장이 세계 7대 자연경관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가 있다. 또한 2일차 저녁때는 지방문화원사무국장협의회 총회가 있다. 2009년 지방문화원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문화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기획공모에 8개 문화원 선정

지역여성문화콘텐츠 공고

〈2011년 지역여성문화콘텐츠 발굴사업〉 추진 단체를 공모합니다.

지역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여성문화를 발굴, 활용하여 창조적인 지역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11년도 지역여성문화콘텐츠발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1. 3. 18(금) ~ 4. 6(수)
- 공모대상 | 지방문화원, 지역여성문화단체, 지역문화예술단체
- 주최 ·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기간 | 2011. 4월 ~ 11월 · 선정발표 | 2011. 4월 중

사업내용

1단계 세부프로그램 | 콘텐츠개발 기획수립과 시범사업

사업내용 | 지역 여성문화자원 자료조사

지역여성문화 발굴과 창작에 참여할 여성그룹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타 지역여성문화 창작을 위한 기초 작업 및 시범사업

프로그램예시 | 지역 여성문화자원 발굴 및 문화자원화

지역문화를 활용한 여성문화창작활동(연극 · 공연 · 관광 프로그램 등)

지원가능 | 신규

2단계 세부프로그램 | 콘텐츠 고도화, 2차 콘텐츠 생산, 지역 확산

사업내용 | 1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및 작품성 있는 콘텐츠 생산

콘텐츠제작과정에 대한 자료화

프로그램예시 | 기 구축 콘텐츠에 대한 보완

지역 여성영화제, 지역으로 찾아가는 여성 영화 · 연극 상영 등

지역확산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2차 콘텐츠 생산

지원가능 | 계속지원가능

지원규모

- 신청규모 | 1개 사업 국고 16,000천원 내외 신청(1단체(원) 1개 프로그램)
- 지원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기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여성문화단체

※ 국립 · 공립기관 및 산하 · 출연기관(단체), 학원 교습소, 언론사 또는 그 소속단체, 초 · 중 ·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문화예술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 · 종교기관 ·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등은 제외

- 신청기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신청 공문 제목은 '2011 지역여성문화콘텐츠발굴사업 신청'으로 할 것

• 기 추진 사업 단체의 경우 수혜인원 확대,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신임 원장



**서울시지회장
이경동**

임기 : 2011.3.18 ~ 2014.3.17
다모아자동차 대표이사
중부운수(주)회장
양천문화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 부지회장



**서울 영등포문화원
김대섭**

임기 : 2011. 3. 17 ~ 2015. 1.
민주평통 상임위원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평화문제연구소 이사
(주)송석엔지니어링 회장



**경기 수원문화원
염상덕**

임기 : 2011. 2. 25 ~ 2012. 4. 3.
수원시 총무국 지방서기관 퇴직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이사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 부회장



**충북 진천문화원
남명수 / 재임**

임기 : 2011. 2. 22 ~ 2015. 2. 31
진천군 공무원
진천군 의회 사무과장
상산라이온스 회장
진천군의회 의원



**전남 장흥문화원
김희웅**

임기 : 2011. 3. 28 ~ 2015. 3. 27
검찰청 방범위원 및
경찰서 선도위원장 역임
법원 가사조정위원협의회장 역임
장흥군 변영회장 및 장흥군
사회단체협의회장 역임
장흥학당 이사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경북 성주문화원
이시용**

임기 : 2011. 3. 17 ~ 2015. 3. 16
성주군 체육회 상임부회장(역)
불교 성주군 신도연합회장(역)
민주평화통일 성주군협의회 부회장(역)
자유총연맹 성주군지부장(역)
(주)동진건설 대표이사(현)



**경남 의령문화원
이종경**

임기 : 2011.3.11 ~ 2013. 1.
의령군지정면장
의령향교전교
경남향교재단이사
의령군지편찬상근집필위원
의령문화원자문위원



**경남 창녕문화원
이수영**

임기 : 2011. 2. 26 ~ 2015. 2.25
창녕군의회 의장
경상남도의회운영위원장
창녕창년회의소 회장
바르게살기창녕군협의회장
한나라당경남도정책위원회
경남개발공사 사외이사

퇴임 원장



**서울시지회장
김영섭**

백운당한의원장
민주평통상임의원



**서울 영등포문화원
홍상기**

(주)금영상사 대표이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경기 수원문화원
유병현**

대한적십자 경기도 봉사협의회 고문
수원시의회 부의장
(주)극동산업 대표이사



**전남 장흥문화원
김기훈**

문화공보부 사무관
전남대학교 학생과정(서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경북 성주문화원
배춘석**

성주군청 자문위원장
군의원(1기)



**경남 의령문화원
강희석**

경상남도 문화체육과장
의령군부군수



**경남 창녕문화원
이이두**

학교법인 삼일학숙 설립자
진경남사학법인회장, 중앙부회장

여행길을 비추는 ✈ 큰빛이 되겠습니다.

HANVIT Tour & Travel

국가기관 해외연수 전문/ 기업 연수 / 전문여행컨설팅

2009, 2010년 주요행사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여성부 과천문화원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청 아시안정상회담
세계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교육대회



